

“죽은 새는 결코 새장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요”

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퇴임 후 어떤 모임에 갔다. 겪은 일이다.

화장실을 다녀오던 그에게 한 여인이 말했다. “바지 지퍼가 열려 있네요.” 처칠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. “걱정 마세요. 죽은 새는 결코 새장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요.”